

“미래 모빌리티 리더”... 정의선, 세계 후산업 영향력 ‘1위’

〈현대차그룹 회장〉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 공개
현대차그룹 새로운 차원 끌어 올려
실천적 리더십, 전동화 전력 차별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다.

글로벌 자동차전문지 모터트렌드는 12일 정의선 회장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모터트렌드는 이날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50인을 공개하고, 정의선 회장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모터트렌드는 매년 모터트렌드 에디터들과 자문위원들의 엄격한 평가와 비공개 투표를 거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50인의 파워리스트를 공개한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1인을 ‘올해의 인물’로 명명한다.

지난 1949년 미국에서 창간된 모터트렌드는 자동차 분야 최고 유력매체로 매월 100만 부 이상 발행되는 잡지와 온라인판 등을 통해 업계에서 신뢰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터트렌드는 정 회장을 ‘가장 영향력 인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정의선 회장은 세계와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평소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사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이라는 모두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은 물론, 로보틱스,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스마트시티, 수소에너지 솔루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모터트렌드는 “정 회장은 현대차

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 있으며, 자동차 업체 최고경영자(CEO) 이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은 현실적이면서도 친근한 혁신가이자 비저너리로 현대차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며 “그의 비전, 위대한 기업이 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회장이 추구하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과 관련해서는 “정의선 회장이 그리는 큰 그림은 데이터, 기술과 소프트웨어 공학뿐만 아니라 무수

히 많은 모빌리티 솔루션을 아우르는 스마트시티까지 망라돼 있다”고 소개했다.

모터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의 실천적 리더십과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모터트렌드는 “정의선 회장은 자율적인 권한 부여, 효율적 의사소통 등에 기반해 회사 경영진들과 구성원들이 담대한 도전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의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모터트렌드는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시작했다면 현대차는 다양한 모델과 스타일, 가격대를 갖춘 멋진 전기차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2025년에 E-GMP의 성공을 이어갈 새로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시설을 설립해 더욱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주행거리 확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제품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모터트렌드는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는 계속해서 장의 흥판을 날리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차량들은 눈

길을 사로잡는 디자인, 품질,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경쟁자들이 맞서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와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모터트렌드의 ‘2023 올해의 차’와 ‘2023 올해의 SUV’를 각각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아이오닉 5’와 기아 전용 전기차 ‘EV6’가 각각 ‘2022 세계 올해의 차’와 ‘2022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한 데 이어 ‘EV6’가 11일(현지시간) 유틸리티 부문 ‘2023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면서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최고 권위의 글로벌 3대 올해의 차를 모두 석권했다.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에는 정의선 회장 외에도 루크 동커블게 현대차그룹 최고창조책임자(CCO) 사장(3위), 호세 무노스 현대차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10위),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 부사장(28위), 카림 하비브 기아디자인센터장 부사장(44위) 등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는 매리 바라 제너럴모터스(GM) 회장(2위),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회장(4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42위) 등도 이름을 올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능력·CDMO 포트폴리오 확대”

2023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대 축 중심의 성장 이어갈 것”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능력·포트폴리오·지리적 거점’을 3대 축을 설정하고 이를 확장해 2023년 글로벌 선두 바이오 기업으로 본격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3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올해 4공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제2바이오 캠퍼스를 통한 생산능력 확장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항체약물접합체(ADC)·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의약품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글로벌 고객사가 밀집한 주요 도시에 거점을 구축하며 3대 축 중심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립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3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메인트랙에서 발표하고 있다.

다. 존립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메인트랙’에 초청받아 전 세계 제약·바이오기업 및 투자

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7년 처음으로 메인트랙 배정을 받은 이후 한국 기업 최초로 7년 연속 메

인트랙에서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연단에 선 존립 대표는 현재 부분가동 중인 4공장을 올해 성공적으로 완공고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해 시장 기회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공장(24만 리터)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능력은 60만 4000리터로 글로벌 압도적인 1위에 오른다. 현재 8개 고객사의 11개 제품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26개 고객사와 34개 제품의 위탁생산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제2바이오 캠퍼스 구축은 의를 본격화한다. 이곳에 7조 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 및 차세대 의약품 기술 기업의 육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ADC, 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제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도 추진한다. ADC 생산 설비는

현재 준비 중이며, 2024년 1분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CDO 부문에서도 새로운 자체 기술 개발을 지속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삼성물산과 함께 결성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혁신 기업에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0년 개소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구개발(R&D) 센터에 이어 지리적 거점 확대도 지속할 예정이다. 보스턴에 이어 최근 주요 빅파마가 위치한 뉴저지에도 세일즈 오피스(영업 사무소)를 구축하여 고객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존립 대표는 “앞으로도 삼성의 바이오 사업 비전과 로드맵에 발맞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2030년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톱티어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플랫폼 끼워팔기 등 금지...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 제시
구글 등 해외 플랫폼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고려요소를 규정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실희효과 등으로 인한 독과점 심화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위법성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는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제한성 평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 등을 제시했다.

먼저, 시장을 획정할 경우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하는 지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무료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간 가치의 교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차네트워크 효과 등 ▲문지기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동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일부 요소를 보완했다.

구글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도 이 심사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상 역외 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측은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